

어린이책 들춰보기

할아버지의 보물지도

정진채 외 지음

을유문화사 / A5신 / 238면 / 2500원

어린이들의 세계에까지도 파소비가 만연한 요즘, 어린이들에게 돈의 소중함과 검약한 생활을 일깨우는 동화모음.

아동문학가 정진채 이슬기 이영두 신동일 네분 선생님의 창작동화와 록펠러, 카네기, 프랭클린 등 근검절약을 실천한 외국의 위인들 이야기를 오인숙 씨가 엮었다.

정미소에서 흘러 내버리는 낱알들을 주워 모아 뾰얀 백설기를 만들어 고아들의 간식을 만들어주는 할머니의 이야기 등 남의 이목에 아랑곳않고 검약한 생활을 실천하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돈'의 의미를 일깨운다.

일등군단

김복춘 외 지음

파랑새 / A5신 / 192면 / 2500원

전국 20여개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자신의 교사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으면서도 다른 어린이들에게 본보기가 된 어린이들의 여러가지 일등사레들을 모아 엮은 책.

일등은 단지 성적으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와 겨뤄 이겨야만 차지할 수 있는 등수도 아니며 순간적인 행운에 의해 얻어지는 것도 아닌, 고운 심정과 바른 생각에 의해 성실하게 노력하며 어려운 난관에서도 굴하지 않고 굳은 의지로 이겨내는 어린이가 진짜 일등이라고 선생님들은 말한다.

공룡은 왜 사라졌을까

윤실 지음

대교출판 / A5신 / 252면 / 3000원

곤충과 동식물의 세계, 미래과학, 생명공학 등 어린이들이 궁금해하는 과학이야기를 재미있게 설명한 과학탐험책.

오랫동안 「학생과학」지에 몸담았던 저자가 그동안 써왔던 글과 사진을 한데 모아 「과학이 우리 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동물들의 놀랍고 신비한 세계가 인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환경오염 등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도 살폈다. 맨앞쪽에서는 전체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컬러화보를 실었다.

거대한 우주과학 이야기

유한준 엮음

대일출판사 / A5신 / 316면 / 3000원

광대하고 신비한 우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

우주는 어떻게 생겼으며, 태양계에는 어떤 별들이 있고, 인류에게 공포를 안겨주었던 혜성의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우주의 탄생, 혜성의 신비, 과학과 인공위성 등 6개의 장에서 배일을 벗기고 있다. 현재의 화학연료로켓으로 왕복 50년이 걸리는 명왕성은 이온로켓을 개발, 이용하면 4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첨단과학의 신비도 아울러 밝혀 어린이들의 탐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부록으로 우주개발용어가 수록돼 있다.



아버님 대갈님에 검불님이 불으셨어요

이효성 지음

가나출판사 / A5신 / 222면 / 3000원

“싫어, 그러면 아버지한테 혼나” “할아버지 미안합니다” “할머니한테 물어보아라” 등 언뜻 보면 바른말 사용 같지만, 어른에 대한 존대말이 발달해 있는 우리말에서 위와같은 사용은 분명히 잘못된 것. ‘혼나’는 ‘꾸중들어’로, ‘미안합니다’는 ‘죄송합니다’로, ‘물어보아라’는 ‘여쭙보아라’로 써야 위 문장에 맞다.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존대말. 이를 바르게 쓰는 법을 쉽게 익히도록 재미있게 동화로 엮었다. 부록으로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예사말과 그 높임말·낮춤말 찾아보기를 실었다.

우정의 나이테

류근원 외 지음

을유문화사 / A5신 / 238면 / 2500원

친구 사이의 ‘우정’을 주제로 한 동화들의 모음. 참다운 우정이란 어떤 것이며,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또 우정을 오래도록 가꾸어 나갈 방법은 무엇인가.

이같은 물음에 대해 아동문학가 소중애, 김한룡, 김삼상, 배이천, 류근원, 박성배 씨가 6편의 재미난 동화로 답한다.

특히 「참다운 우정의 길」에서는 관중과 포숙아의 사립, 신라화랑 사다함과 무관랑의 우정 등 옛선인들의 우정에 대해서도 살피게 했다.

서울로 간 허수아비

윤기현 지음

산하 / A5신 / 248면 / 2500원

전남 해남에서 양봉과 농사를 지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를 써오고 있는 작가의 창작동화집.

누렇게 물들어가는 들판에서 참새를 쫓던 허수아비가 도시아이의 장난감이 되어 서울로 와서는, 금세 싫증난 아이 때문에 쓰레기통에 내동댕이쳐져 난지도 쓰레기장에 실려가는 줄거리를 담은 표제 동화를 비롯해 「엄마따오기의 슬픔」 「새벽 장터길」 등 모두 12편의 동화에서 어린이들에게 인간다운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들려주고 있다. 어린이들의 생각을 울곧게 잡아주는 산하 어린이문고 6권째.

우리는 친구

김효림 외 지음

대교출판 / A5 / 240면 / 2500원

어린이들은 과연 ‘친구’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친구를 좋아할까.

이책은 유치원과 국민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주)논노에서 마련한 ‘제1회 친구이야기 글짓기대회’ 입상작품 80편을 모은 것이다.

공부도 못하고 못생기고 짓궂기만 한 아이, 체육복 뒤통수머리에 모래를 숨겨와 세탁기를 망가뜨리는 아이, 옷 버렸다고 엄마한테 혼나도 온종일 흥장난을 하는 것이 제일 재미있다는 아이 등 밋고, 짓궂고, 때론 화를 내게도 하지만 그래도 웬지 귀엽고 좋은, 없으면 허전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솔직하게 드러나 있다.